

韓國 祭祀遺蹟 事例

-青銅器時代 農耕聚落을 中心으로-

李宗哲(全北大學校博物館)

I 머리말

유대관계가 강한 취락사회에서는 그들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다양한 질서가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질서는 취락구성원들로 하여금 취락의 준립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락민들의 생활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례나 제사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례는 제사, 제의, 공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절차이자 의식이다. 이 가운데 제사(祭祀)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하거나 죽은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통털어 말한다. 특히 「祭」와 「祀」는 갑골문에서 유래된 문자로, 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집어 제단에 바치는 모습을, 사는 제단 앞에 있는 갓난아이의 모습을 의미한다(김성재 2000).

『국조오례의』에는 제사의 대상에 따라 천신은 사(祀), 지기(地祇)는 제(祭), 인귀(人鬼)는 향(享), 문선왕 공자는 석전(釋奠)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圓丘壇), 땅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 농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先農壇),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단(先蠶壇) 등의 단을 마련하여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3). 삼국시대 백제의 제사 관계 기사를 볼 수 있는 『삼국사기』 「제사조(祭祀條)」나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의 제사는 국가 차원의 제사로서 하늘에 대한 제천(祭天), 땅에 대한 사지(祀地), 오제신제사(五帝神祭祀), 왕실의 시조와 국모에 대한 제사, 산천제(山川祭)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서영대 2007). 비록 삼국사기와 국조오례의에 사용된 문자는 상반되지만, 하늘과 땅을 매개로 바람을 기원했다는 점은 공통된다.

필자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신창동을 중심으로 ‘도작 농경사회의 제사와 의례 문화’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제사유적의 소개보다는 도작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 혹은 의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¹⁾. 특히 광주 신창동 유적은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농경사회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청동기시대의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나 초기철기시대 및 원삼국시대와 연관될 수 있는 입대목(立大木) 제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한국의 제사유적

우리나라의 제사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사유적은 60여 곳

1) 우리나라의 제사유적에 대해서는 조현중(2014)에 의해 개괄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조현중의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조현중, 2014, 「祭祀考古學-선사·고대의 祭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pp.7~26.

이상이며, 생활제사·수변제사·항해제사·분묘제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현중(2014)은 이 유적들을 검토한 결과 생활제사, 생산제사, 분묘제사로 분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유적들 가운데 신석기~원삼국시대의 제사유적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 제시된 유적들은 제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사례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사 혹은 의례 흔적들은 주거영역, 생산영역, 매장영역에서 각각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신전으로 추정되는 초대형의 굴립주건물(고상가옥)은 부여 송국리와 사천 이금동 등 지역의 거점취락으로 볼 수 있는 유적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표1] 신석기~원삼국시대의 제사유적(조현중 2014)

(■는 필자 추가)

시대	연번	유적명	유구 또는 성격	내용
신석기시대	1	영종도 논들	적석유구	회자형의 방형 구획
	2	진주 상촌리	적석유구	구(溝) 설치
청동기시대	1	부천 고강동	적석유구+환구	적석유구, 원형 도랑
	2	보령 관창리 ■	토기가마군, 동지주건물	토기생산 제사
	3	부여 송국리 ■	신전	대형 굴립주건물, 울책
	4	진안 여의곡 ■	집석유구, 입대목	파쇄품, 원형수혈, 운반로
	5	나주 운곡동	암각화	격자세선문
	6	남원 대곡리	암각화	발패형, 성혈
	7	여수 돌산 세구지	제사유구	파의식관련 암괴
	8	여수 오림동	암각화	마제석검, 인물
	9	고령 양전동	암각화	동심원, 가면, 기하문
	10	합천 영창리	수혈, 토기가마	세형동검, 탄화물
	11	산청 목곡리	구상유구 및 수혈	구하도 주변 구에 파기
	12	산청 백운리	매납	청동기 매납
	13	진주 대평리 어은1	집석유구	주거군, 집석유구, 경작지
	14	창원 남산	환호	석기와 토기 폐기 등
	15	창원 상남동	구상유구, 환호	도랑 내부 다량의 토기편
	16	창원 토월동	제사유구, 환호	도랑에 다량의 토기편 등
	17	마산 가포동	매납	청동기와 석기를 매납
	18	사천 이금동	신전	초대형 굴립주건물
	19	대구 동천동	수변제사	집석유구, 집수지
	20	대구 진천동	입석, 석축	석축 기반
	21	청도 사천리	유물산포지	농어구 출토
	22	청도 예전리	매납	비파형동검 매납
	23	울산 대곡리	암각화	바다동물과 육지동물
	24	울산 천전리	암각화	동물, 기하학무늬
	25	포항 안비리	암각화	석검과 석촉
초기철기시대	1	보성 조성리	수변제사	토기, 목기, 복숭아씨
	2	안성 반제리	제사유적	환호
	3	오산 가장동	제사유적?	주거지, 수혈
	4	화산 동학산	제사유적	환호, 소형토기, 파쇄품
	5	전주 효자4 ■	매납	세형동검, 동경 등
	6	완주 상림리 ■	매납	동주식동검 26점
	7	광주 신창동	저습지(복합마을)	현악기, 북, 소형토기 등
	8	대구 만촌동	매납	동과, 동검, 검부속구
원삼국시대	1	부여 논티	제사유적	대형토기, 철기, 곡물
	2	고성 동외동 패총	수혈	조문청동기, 토기류, 뼈

Ⅲ 농경취락과 제의 사례

1. 거점취락과 신전(神殿)의 등장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취락은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공동체적 노동력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집중은 일손이 많이 드는 파종기나 수확기에 이루어지는데,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의 5월 파종제와 10월 수확제는 대표적인 농경의례로 볼 수 있다(노중국 2010). 비록 시기적인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할지라도, 농경의례로서의 일반적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례행위를 위한 노동력의 집중, 참여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그에 따른 조리담당자들·분배자들·소비자들의 관계, 흥을 돋우는 음악과 춤의 집단유희, 축제 성향의 의례과정에서 비롯된 노지·구덩이·깨진 그릇들과 쓰레기 등 각종 구조물과 잔존물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물질적·관념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졌을 의례 공간은 취락의 한 부분으로서 특수적 기능을 수행했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의적 성격을 가지는 대상들 중에서도 초대형의 고상가옥(高床家屋)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큰 규모의 고상가옥 혹은 일반적 규모의 굴립주건물은 보령 관창리, 부여 송국리, 공주 신영리, 익산 영등동, 영암 장천리, 대구 동천동, 청도 진라리, 사천 이금동 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표2), 곡물창고·의례장소·공공집회소·신전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부여 송국리 12차 조사 1호·2호, 사천 이금동 60호·61호와 같은 초대형의 고상가옥은 일반적인 잉여생산물 창고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취락에서 초대형에 속하는 건물로서 일반적인 규모의 굴립주건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성과 타당한 용어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그림1). 이러한 관점

[표2] 대형·초대형 고상가옥 현황 (평면적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잔존수치는 ()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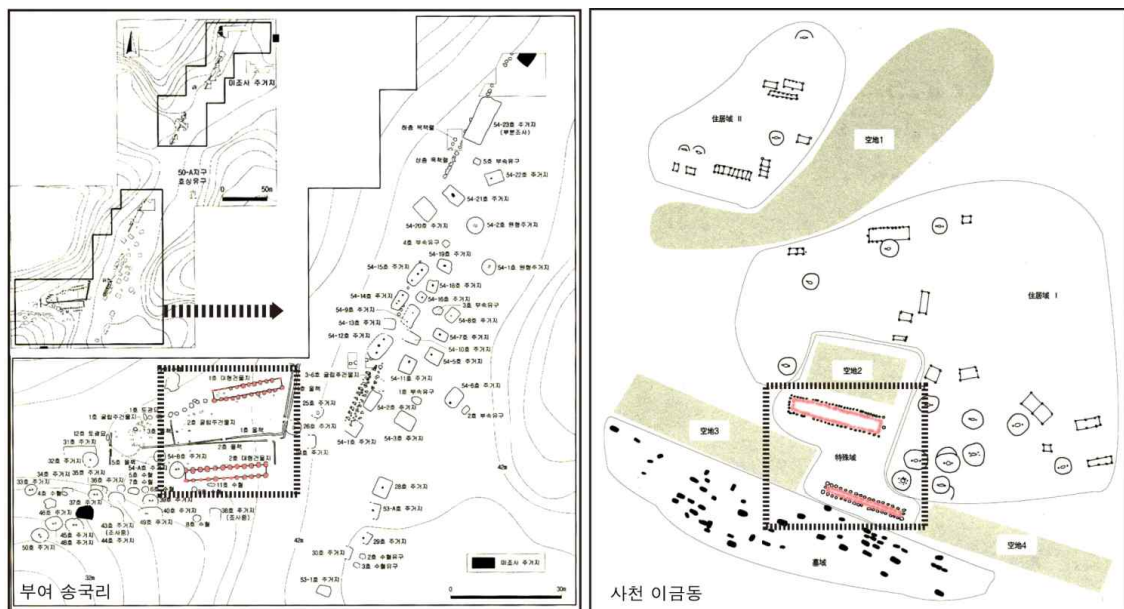
유적명	유구명	축조방식	규모cm	면적㎡	도면
보령 관창리	KC204	4칸×2칸	1020×260	27	
	KC210	7각형	800×770	43	
부여 송국리	1호	11칸×1칸	1900×310	59	
	2호	11칸×1칸	2400×340	82	
대구 동천동	5호	10칸×2칸	1416×210	30	
	6호	7칸×2칸	900×262	24	
청도 진라리	2호	11칸×2칸	1440×200	29	
	3호	9칸×1칸	1232×210	26	
사천 이금동	60호	□칸×2칸	2900×600	174	
	61호	19칸×2칸	2600×500	130	

에서 필자는 일반적인 주거의 규모를 전후하는 굴림주건물은 보관창고 개념으로,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형태로 축조되거나 주거의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필요 이상으로 대형화 되는 굴림주건물은 의례용 고상가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고상가옥들을 특수적 기능을 수행했던 건물이라는 가정하에 제의와 연관된 신전(神殿)으로 보는 견해를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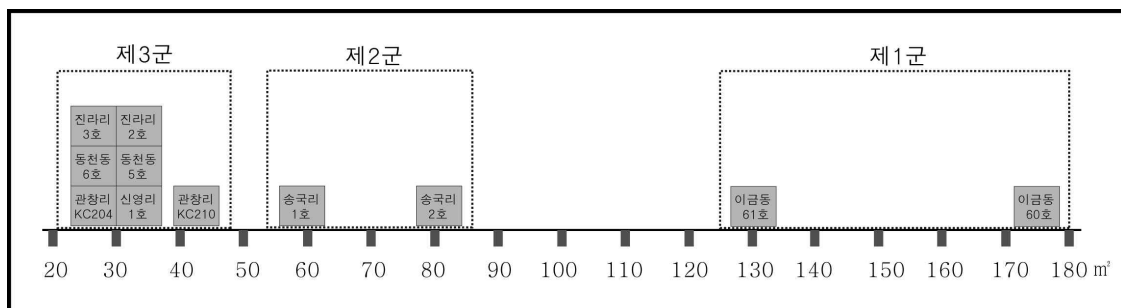
[표2]에 제시된 유적들은 거점취락이거나 준거점취락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한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대규모 취락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대형 및 초대형 고상가옥은 면적 비교에서 크게 3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대형의 규모를 상대적인 규모 서열로 나눈다면 제1군은 이금동, 제2군은 송국리, 제3군은 관창리·동천동·진라리 등으로 구분된다(그림2). 이러한 면적 비교는 송국리와 이금동의 초대형 고상가옥이 갖는 특수적 기능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제1군은 규모가 워낙 커서 세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안재호는 이금동 취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굴림주건물을 창고로, 61호 고상건물을 의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높은 건물로 추정한 바 있다(안재호 2009).

제2군과 제3군은 송국리형주거의 최대면적을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구분



[그림1] 송국리·이금동 취락 내 초대형 고상가옥의 분포(左_손준호 2010 · 右_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재편집)



[그림2] 대형 및 초대형 고상가옥의 면적 분포

하였다. 현재까지 송국리형주거의 최대면적 상한은 55㎡내외로서, 전국적 분포를 막론하고 초대형에 속하는 범위이다. 따라서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송국리형취락민들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유일한 취락은 부여 송국리다.

제3군의 면적분포는 일반적인 중형과 대형 주거의 범주에 속하고 있어, 취락마다 자연자원의 확보 여부와 건물 규모에 대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특수한 기능의 고상가옥을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령 관창리B 취락은 101기의 주거지 가운데 초대형 주거는 54~56㎡범위에 위치하고 있어 고상가옥과 송국리형주거의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창리B 취락에서 최대규모는 KC78호 송국리형주거의 55.8㎡이기 때문에 고상가옥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점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초대형의 고상가옥이 새로운 시각에서 차별화되고 거대화되는 것은 부여 송국리와 사천 이금동 취락에서 엿음을 바로 알 수 있다.

한편 부여 송국리에서 조사된 고상가옥과 주변에 설치된 울책(鬱柵)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에 보기 드문 시설이다. 울책은 통나무 등을 뺄뺄하게 세워 만든 울타리로 추정되고 있어 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주변의 궁터(광장)를 아우르는 이러한 정황은 대규모 인력동원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취락 내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송국리 취락의 특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정치영 2009).

송국리형문화단계의 초대형 고상가옥이 일본 오사카후(大阪府) 이케가미소네(池上會根) 유적에서 확인된 기원전 1세기 대의 대형건물지와 동일한 성격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사회발전 단계의 배경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즉 일차적으로는 취락민을 집결시켜 종교적이든 의례적이든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공유의 장(場)을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형태가 대부분 좁고 세장한 복도식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구심적(求心的) 공유보다는 종횡적(縱橫的)인 공유가 예상된다. 결국 제의를 매개로 대중적 지지와 공감을 통해 취락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 체제의 구축과 안정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한 착취적 또는 관리자적 지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2. 농경 취락과 입대목(立大木) 제의(祭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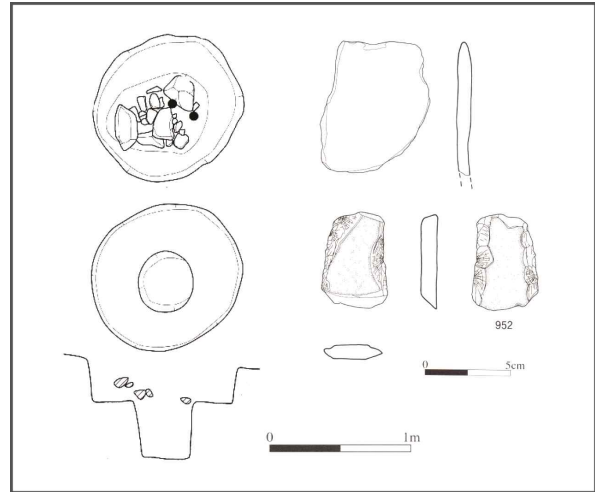
입대목은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韓條)」에 기록된 소도(蘇塗)의 의례목(儀禮木)이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솟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입대목 제의는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적 의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맹점이다.

입대목은 지금까지 기록에 의한 인용에만 의존했을 뿐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적극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근거자료는 다소 부족하지만, 취락공동체의 농경의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는 점에서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농경취락인 진안 여의곡(이종철 2014)과 김해 율하리(경남발전연구원 2009)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진안 여의곡 유적

진안 여의곡 유적은 송국리형주거, 묘역식 지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밭, 상석운반로 등으로 이루어진 전북 동부지역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거점취락으로 평가되고 있다.

1호 수혈은 2단으로 굴광된 원형 수혈로서 1단 수혈의 직경은 105cm이고 깊이는 30cm, 2단 수혈의 직경은 40cm, 깊이는 표토하 70cm에 이른다. 중앙부에 대목을 설치하였다면 통나무의 두께는 30~40cm 내외로 추정된다. 1단 수혈 바닥에서는 인두대 크기의 천석이 가장자리에 놓이고 무문토기편, 할석과 천석이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심발형 토기로 추정되는 무문토기편 1점과 편인석부로 여겨지는 미완성석기 1점이 출토되었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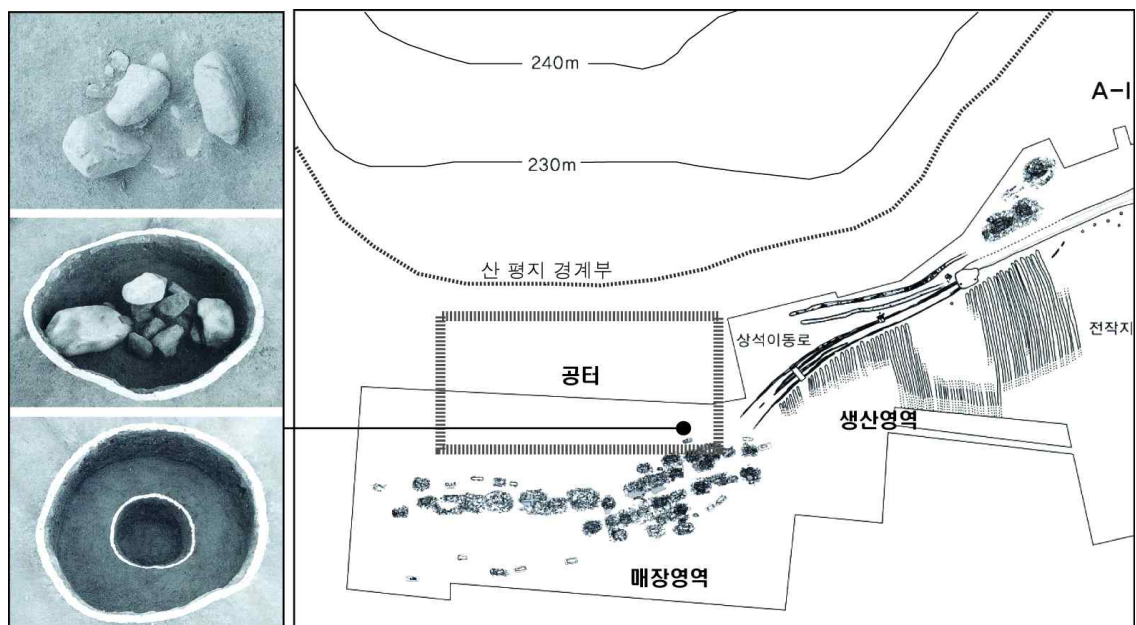


이 수혈은 매장영역과 생산영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야산과 매장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지(空地)에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 지점은 매장영역과 생산영역의 경계부이자 매장영역까지 덮개돌을 운반해오던 상석운반로(이종철 2003)의 종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의곡 취락민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4).

먼저, 1호 수혈이 입대목과 관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단 굴광의 정연성을 들 수 없다. 2단으로 굴광한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수직으로 굴착한 것은 기둥과 같은 통나무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표로부터 70cm 깊이로 묻힌 기둥은 매우 견고한 상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혈의 중앙부에는 천석과 할석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배치는 무엇인가를 세운



[그림4] 진안 여의곡 1호 수혈의 위치 및 유구 분포도

후 뒷채움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의 2단 수혈에 기둥을 세운 후 작은 돌들로 상부 공극을 메웠을 것이고, 그 바깥쪽과 위에 인두대 크기의 천석을 놓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1호 수혈은 여의곡 유적에서 조사된 무덤이나 여타 수혈유구와는 전혀 다른 굴착방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당대의 소형 석관묘나 옹관묘와 다를 뿐만 아니라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일반적인 수혈유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수혈은 특정 장소에서 특수한 기능을 위해 굴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숯대나 입대목 신앙은 대체로 주거영역의 넓은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진안 여의곡은 주거영역이 야산에 입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지를 이루는 공지가 필요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장영역과 생산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1,500㎡ 이상의 평지는 매우 유용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수혈은 공지의 선택과 설치의 의도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1호 수혈이 입대목의 흔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록에 나오는 입대목은 한(韓)의 문화요소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제의적 전통 혹은 원초적인 입대목 제의는 송국리형문화단계의 어느 시점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의곡의 입대목과 1,500㎡ 이상의 공터는 매장영역과 생산영역(밭)의 경계부에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조상신 숭배-분묘축조-농경신 숭배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거영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편에 야산이 있고, 앞쪽에 무덤군과 금강을 마주하고 있어[背山臨水] 제의 수행을 위한 종교적 경관으로 적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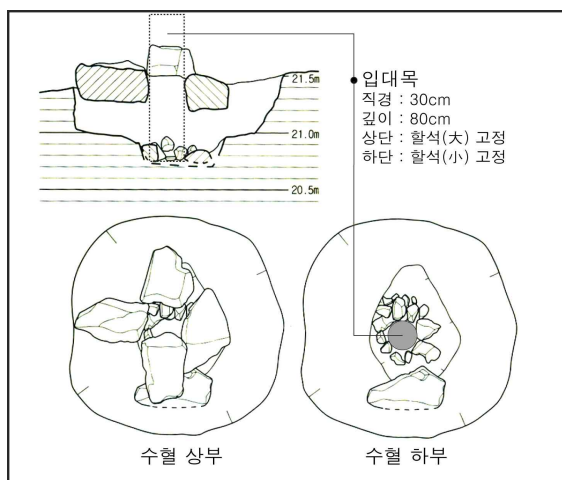
셋째, 입대목과 공터는 여의곡 취락의례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에서 무덤(지석묘) 축조를 위해 상석운반구와 운반로를 이용하여 채석장으로부터 무덤군까지 상석과 벽석 등을 옮겨올 때 수행했을 운반의례, 무덤 축조 시 행해졌던 토기와 석기의 파쇄의례, 파종기와 수확기에 이루어졌을 농경의례, 금강의 범람 시기나 가뭄기에 행해졌을 기원의례 등 다양한 제사와 의례를 주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2) 김해 울하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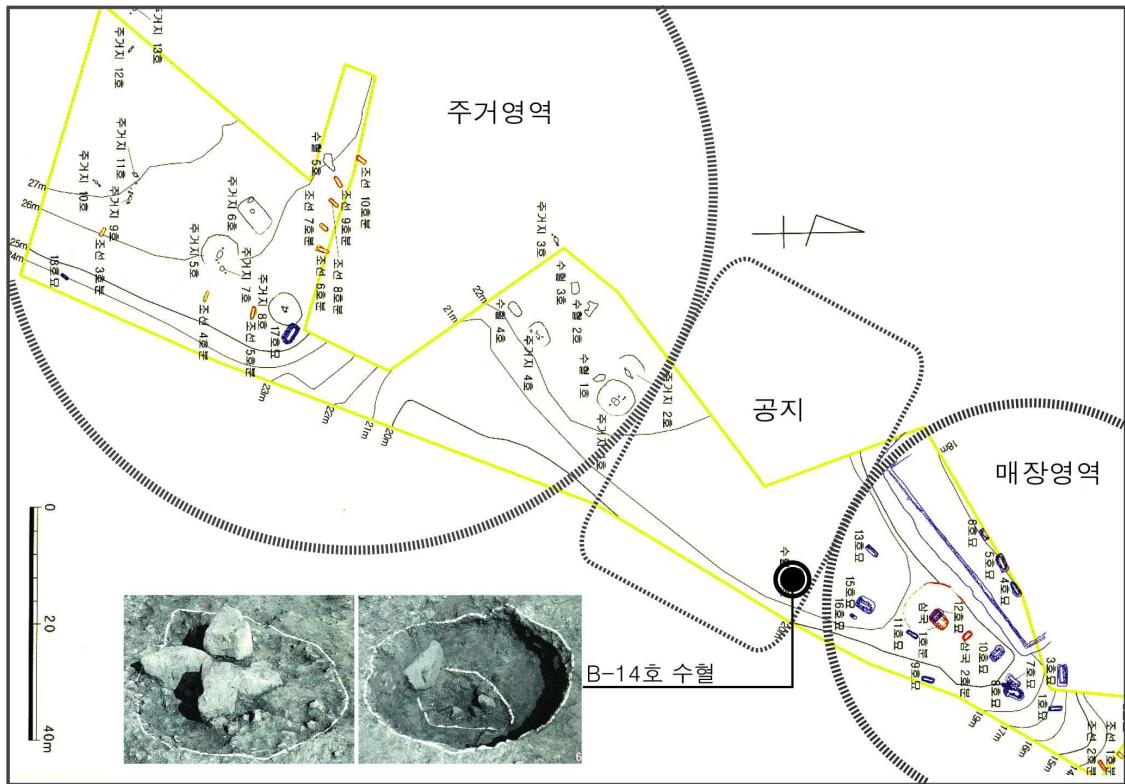
김해 울하리 유적은 송국리형주거, 묘역식 지석묘, 석관묘, 목관묘, 토광묘 등으로 이루어

진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취락이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수혈유구는 여의곡 유적의 사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구조와 성격이 매우 흡사할 뿐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다.

B-14호 수혈은 2단의 원형 수혈로서 1단 수혈은 192×184cm, 깊이 50cm이고, 2단 수혈은 100×80cm, 깊이 30cm를 이룬다. 1단 수혈 상부에는 중심부에 30cm 길이의 사각 공간을 남긴 채 커다란 할석이 십자 모양으로 놓여 있고, 2단 수혈 바닥에는 직경 30cm의 원형 공간을 남긴 채 소할석들이 둥글게 놓여 있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분명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림5] 김해 울하리 B-14호 수혈



[그림6] 김해 율하리 B-14호 수혈의 위치 및 유구 분포도

유적 보고자도 이 수혈의 구조적인 특징을 간과하지 않고 청동기시대의 솥대였을 것으로 추정은 하였지만(경남발전연구원 2009), 단순히 추정에 그쳤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좀더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율하리 수혈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무덤이 함께 조사된 지점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분묘 유적에서 이단 수혈과 같은 유구가 확인되거나 연계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주거영역과 매장영역 사이의 공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수혈에서 확인된 크고 작은 할석들의 배치는 구조적으로 원형의 대목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율하리 수혈은 구조적으로 여의곡 수혈과 궤를 같이 하며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①2단 수혈로 굴광된 점, ②대목의 지지를 위해 흙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할석이나 천석을 이용하였다는 점, ③수혈의 깊이가 율하리는 80cm, 여의곡은 70cm로, 깊고 견고하게 묻었다는 점, ④독립된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공터에 위치하지만 매장영역에 인접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두 유적의 차이점이 있다면, ①율하리는 1단 수혈 중앙에 큰 할석으로 대목을 지지한 반면, 여의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점(물론 존재하였으나 상단부가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②돌의 지지 위치는 율하리가 수혈의 하부와 상부인 반면, 여의곡은 2단 수혈 상부 또는 1단 수혈 바닥인 중간부라는 점, ③율하리는 2단 수혈 중앙에 원형의 소할석열로 대목의 중심을 잡은 반면, 여의곡은 대목과 거의 동일한 직경의 수직구멍이었을 가능성, ④율하리는 출토유물이 전혀 없는 반면, 여의곡은 미완성품과 파쇄품을 넣었다는

점, ⑤올하리는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의 사이에 위치하는 반면, 여의곡은 생산영역과 매장영역의 사이에 존재하는 점이다.

여의곡과 올하리 입대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여의곡과 올하리 유적 입대목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여의곡	올하리
공통점	■ 2단으로 굴광한 수혈	
	■ 크고 작은 할석이나 천석으로 수혈 중앙의 대목을 지지	
	■ 깊게 굴착(여의곡 70cm, 올하리 80cm)	
	■ 두 영역 사이의 공터에 위치하지만 매장영역에 인접하여 설치	
차이점	■ 1단 수혈 상부에 대석 확인 안 됨	■ 1단 수혈 상부에 대석으로 대목 지지
	■ 수혈의 중간에서 돌로 대목 지지	■ 수혈의 상단과 하단에서 돌로 대목 지지
	■ 대목과 동일한 직경의 수직 2단 수혈	■ 원형의 소할석열로 지지하는 2단 수혈
	■ 미완성품과 파쇄품이 출토	■ 출토유물 없음
	■ 생산영역과 매장영역 사이에 위치	■ 주거영역과 매장영역 사이에 위치

이상의 고고학적 근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올하리 입대목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올하리 입대목은 여의곡 유적과 마찬가지로 송국리형문화 단계부터 원초적인 입대목 제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대목 제의는 송국리형문화를 향유하는 다른 대규모 취락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입대목의 위치는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을 서로 이어주는 공동체적 제장으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해 취락민들의 자의식과 조상신에 대한 숭배를 확인하는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북동-남서향을 이루는 구릉 주변은 넓은 농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천 이금동과 마찬가지로 경작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에 논이나 밭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농경의례로서의 제장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여의곡과 올하리 유적의 청동기시대 사례 외에 전주 송천동, 익산 배산·광암리, 담양 성산리·오산, 나주 구기촌, 해남 분토리 등지에서 조사된 수혈을 입주제사(立柱祭祀)의 흔적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이영철 2014). 이들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입대목을 세울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과 다른 수혈유구와 차별될 수 있는 변별성, 입대목의 위치가 갖는 취락에서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맺음말

한국의 제사유적 사례를 다룸에 있어 최근까지 조사된 다양한 유적이거나 문헌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지만,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존하여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초점이 광주 신창동 유적과 농경의례에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신전과 입대목 신앙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 역시 연구대상과 범위에서 동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청동기시대의 신전과 입대목 제의가 온전한 고고학적 근거 속에서 설정된 것은 아

니지만, 필자는 이러한 종교적·사회적 배경이 송국리형문화 단계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기원 전 1세기까지 존속했던 그 전통성을 고려하여 초기철기시대 농경의례와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 싶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전과 입대목 제의는 제사와 관련될 수 있는 중요 키워드가 될 수 있고, 농경사회 및 농경의례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자 한다.

앞으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소도(蘇塗)나 입대목 관련 유적이 조사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고고학적 맥락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유구나 유물로 확인되기를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기회삼아 기원해본다.

참고문헌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泗川 梨琴洞 遺蹟』.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9, 『金海栗下里遺蹟Ⅱ』, 김해 읍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I 지구 발굴조사.
-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 p.10.
- 김경택·정치영·이건일·민은숙·주혜미·정은지, 2011, 『松菊里 VII-부여 송국리 유적 제12·13차 발굴조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 김성재, 2000,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 동녘, p.58, p.530.
- 金承玉·李宗哲, 2001, 『如意谷遺蹟』,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Ⅷ, 全北大學校博物館.
- 노중국, 2010, 「한국 고대의 수리시설과 농경에 대한 몇 가지 검토」,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편, pp.41~42.
- 서영대, 2007, 「백제의 천신숭배」, 『백제의 제의와 종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p.133.
- 安在皓, 2009, 「青銅器時代 泗川 梨琴洞聚落의 變遷」, 『嶺南考古學』 51, pp.22~24.
- 이영철, 2014, 「고대 취락의 제사」,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李宗哲, 2003, 「支石墓 上石運搬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50.
- 이종철, 2014,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聚落儀禮에 대한 토론」,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pp.58~62.
- 鄭治泳, 2009, 「송국리취락 ‘특수공간’의 구조와 성격-大形 掘立柱建物を 중심으로-」, 『韓國 青銅器學報』 第四號, pp.65~71.
- 조현종, 2014, 「祭祀考古學-선사·고대의祭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